

<연합인터뷰> 미국 원전도시 미들타운 시장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2.11.13. 14:00 최종수정 2012.11.13. 14:00



미국 원전도시 미들타운 로버트 시장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최악의 사고로 분류된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당시 시장이었고 현재도 시장인 로버트 레이드씨가 13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원전 소재 도시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기장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2012.11.13. ccho@yna.co.kr

1979년 스리마일 원전 노심용융사고 대응 경험

"원전사업자, 주민과 소통하는 좋은 이웃돼야"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미들타운은 9천여명의 주민들이 사는 비교적 작은 도시다. 미들타운에서 8km 떨어진 곳에 스리마일 섬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1979년 3월28일 이속 스리마일 원전 2호기의 원자로 노심이 용융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2호기 냉각수 공급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원자로 노심 윗부분이 노출되면서 소량의 방사능이 방출됐고 수소가스에 의한 용기폭발도 있었다. 당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대피하도록 명령했고 주민들이 공황상태에 빠지면서 14만명이 지역을 떠났다.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최악의 사고로 분류된 스리마일 원전 사고 당시 시장이었고 현재도 시장인 로버트 레이드(80)씨가 13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



미국 원전도시 미들타운 로버트 시장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최악의 사고로 분류된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당시 시장이었고 현재도 시장인 로버트 레이드씨가 13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원전 소재 도시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기장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2012.11.13. ccho@yna.co.kr

--부산을 방문한 소감은.

▲11일 밤에 부산에 도착했다. 부산은 아름다운 해안을 가졌다.

--기장포럼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원전 소재 도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대해 고민한다. 공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원전사업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행정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내가 겪은 일도 설명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ccho@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이스라엘, 시리아에 또 발포..."장갑차 명중"(종합)

☞현아 "제가 섹시하다고요? 반전 매력 있죠"

☞文-安 `단일화 룰협상' 착수..신경전(종합2보)

☞'새 얼굴 찾아라' 한국축구 14일 호주와 평가전

☞"그리스, 추가구제금융 확보 확실시"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5930512>

인쇄하기

취소